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7호 [루체 제26181호] 주제 107 (2018)년 11월 3일 (토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다. 석탄전선에서 생산적 양양을 일으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자

사설

석탄전선이 경제건설대진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며 대원당의 철학으로 높이 밟고 석탄전선이 무부끄러워졌다. 순천과 북창, 북창과 개천, 인주지구를 비롯한 각지의 지하坑장들에서 파악한 생산률격차는 벌어지고 있으며, 생산, 증강기판과 수많은 단위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탄광지원원에 적극 힘써 나서고 있다.

세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 전체 인민은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촉진할 경제건설대진군에 더 큰 박차를 가하려는 당시의 의도로 성장깊이 새기고 그 편지를 위로 향에 흥미진하여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 양양의 불길을 세우자며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석탄전선에서 높이 울려펴지는 생산활성화의 음을, 이것은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의 힘찬 기상이며 우리 전진자를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에게 내리는 침수이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석탄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들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율을 높여 준수에서 정상화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전진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두정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있다. 김철과 황철에 주체철 생산계가 확립되고 도처에서 석탄에 의거한 자립생성계의 생산장치들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금속, 전력공업과 철도운수부문,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을 풀어주고 품질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 자체

운동에서 승진고를 높이 울리자면 결정적으로 석탄전선에서 생산활성화의 불길은 세우자며 지펴올려야 한다. 생산난이 높아 생아지는 것만큼 경제건설속도가 더 높아져 풀어진 미래가 일당하게 된다.

세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공업의 생명선을 지켜겠다는 긍지와 영

예를 암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

가야 한다.

각지 탄광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기록과 함께 올해의 전투를 끝나기 전까지 하루도 멀리나가야 한다.

자기 앞에 맡겨진 철두목표를 험성화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자각을

하고 오늘의 순간순간을 흘려적혀온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올해 철두파전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인민경제 계획을 한수하게 완수하는 데 힘써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석탄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하는 책임과 함께 철두목표를

달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고난과 시련을 박치고 후에서도 유를 창조해나가는 위력을 보길 원한다. 탄광에서는

내부에 비해 가능성은 흥물처럼 생활상을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가야 한다. 모든 탄광에서 기본

기능과 기관을 풀어놓아서 생활을

높이 높여나

체육과학기술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의의 깊은 계기

제 2 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장을 돌아보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의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제 2 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진행되는 과학기술전당을 찾았습니다. 2 번째 네舅舅으로 아로새기게 꽂아 이번 전시회의 규모에 대하여 알고 싶다는 우리의 물음을 체육과학기술부성과전시회에는 철국의 3 6 0여개 단위들에서 출품한 1 4 0여건의 과학기술성과들이 전시되었고, 지난해보다 배수증점이나 많은 전시품들이 전시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와 함께 우리가 먼저 이른 봄은 전시회장 입구에 있는 정양시 향풍구락부전시대였다. 전시대 앞에는 많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우리는 향풍구락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양시 향풍구락부 광장은 학생장정 강하우의 훈련 기체를 가리키며 《향풍구락부》가 많은 선수들 수록 기술이 높다고 말합니다. 선수

들이 실전과 같은 조건에서 강하고 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제가 있으면 땅에서도 강하고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전도우당한 학습선수들을 기워 가려는 구라부일 군들과 김독들의 높은 책임성과 실력이 비전 훈련 기재는 고도, 거리, 바람속도를 비롯하여 실지 강하기에 나타난 있는 정황을 주고 그 대응한 조종법을 숙련 훈련할 수 있게 하는 우점으로 하여 전문가들 속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 우리는 자강도 전시대로 걸음을 옮기었다. 전시관에 들어온 우리에게 기록들이 이를 통해 우리에게 흐름 기재를 알리면서 향풍구락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강체육대학에서 출품한 배구봉사기였다. 우리와 만난 강체육대학에 대한 기록을 보며 우리는 향풍구락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에서 출품한 허리힐 측정기계

과 제육연구원 체육영양학

에서 출품한 배기증조제

과 체육연구원 체육영양식

에서 출품한 배기증조제

과 체육연구원 체육영양식

에서 출품한 배기증조제

과 체육연구원 체육영양식

세계적인 정치풍파에도 끄떡없는 인민의 나라

『조선은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푸모하고 인민의 자주적이며 행복한 삶이 지켜지고 꽂아여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친보적인 유의 결합같은 결해이며 찬사이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는 있다. 평화와 인구수를 사랑하는 나라도 있고 높은 경제성장을 뿐만 아니라도 있으며 방대한 국사력을 시위하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인민의 나라라고 자부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 공화국만이 인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떠받들고 인민을 위해 존재하며 인민의 존엄과 존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찬운 인민의 나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꽂아우는데 모든 것을 지원시켜나가고 있습니까?』

국가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가르는 척도는 인민에 대한 관찰과 평가에 있다.

인민을 력사발전의 주체로, 국가정치의 주인으로 보는가 아니면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가 하늘에 따라 사회제도의 진보성과 반동성이 갈라진다.

지구상에 국가가 출현한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역사에는 여러 유형의 사회제도를 존재하였다. 하지만 그 어느 국가도 인민을 주인으로 내세운 예가 없

다. 근로인민대중은 항상 좌우의 대상으로 되었을뿐이다.

오늘날 『만민평등』,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인민대중의 처지는 더불어 악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민평등』이란 구소수 좌우계 계급이 광범한 근로대중을

억압하고 좌우하는 불평등한 현실을 가리기 위한 면사포이며 『민주주의』는 부르주아계를 미화하기 위한 명동에 뿐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이 국가와 사회주의 주인되어 자기의 의사로 집행·성장·정치에 참여하고 국가의 인민적지속에 누구나나 마음껏 배우고 일하며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고있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칭찬하면서 부여물을 금지하고 있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부여하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월한 제도이다.』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은 우리 나라의 인민적의료시책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였다.

『최근간 조선은 해마다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를 일제히 교육하고 사회주의 보건체계도 부단히 바꾸어 와서 조선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담보

해주고있다. 류경안과 종합병원은 이러한 배경 하에 건설되었다.

오늘날 『만민평등』,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인민대중의 구체적으로 로제되었었다.

기자는 류경안과 종합병원 주변에 평양산원 유신종양연구소와 류경지과병원, 유희아동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최근 몇년사이에 새로 건설된데 대해 류

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세국주의자들의 강원과 전횡, 치략과 간접으로 인해 정치적 안정과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인민들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물설은 이역땅으로 기약 할수 없는 길을 떠나는 피난민들의 불행한 처지는 나라가 아까운 인민의 운명이 비참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짓밟힌 백성, 나라잃은 인민에게는 참다운 권리와 자유,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지난 새기 전반기 식민지조선의 운명이 그것을 말해준다. 나라를 떠나온 학생たち에 5천년 역사국의 인민이 노예가 되고 자

기의 모든것을 강탈당하였다.

오늘날 우리 조국은 그 어떤 대적도

같이 범접하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로 솟아있다.

병도자가 위대하여 나라가 위대하고 인민이 위대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밑에 새기

이어 승리와 영광의 힘사를 아새져온

우리 인민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속에서 자녀의 존엄과

공정과 영예를 만방에 퍼뜨리며 주체조

선의 영대기기를 더욱 자랑하게 및내려가

고있다.

최희의 철출위임을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히

존엄높은 인민, 위대한 인민으로 그

이름 떨쳐갈것이다.

오늘까지도 그려 한 미국은 계속되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일심단결의 모습

로씨야 출판보도들

더욱 강화발전된 막강한 국력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영병식과 군중시위는 일심단결된 조선의 모습과 이 나라 인민의 평화수호의지를 더 잘 알게 한 행사이였다.

『RTT』TV방송은 조선이

공화국 창건 70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수많은 학생들의 일치한 행동

으로 이루어진은 정교한 배경

네 단체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대한 소개편집물과 사

진들을 살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RTT』TV방송은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영병식과 평양시군중시위와 대

집단체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보여주는 전집들을

방영하면서 그에 대하여 상세히 전하였다.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와

같은 현대적인 거리들로 하여

평양의 모습은 횡포가 속았던

제재속에서도 발전하는 조선

의 모습은 실로 놀라웠다.

조선은 방랑을 취재단에 있어

서 가장 인상깊은 것은 대집단체

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을 관람한 것이다.

김정은회고령도자들은 신미로

운 행정과 풍물은 횡포에 속았던

제재속에서도 우려되는

경우에 대처하여 나라들이 흥내될수

없는 것이다.

김정은회고령도자를 훗데 머물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러 나라의 언론들도

『조선을 알려거든 『빛나는 조국』을 보라』고 보도하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고 지향하는

조선인민의 냉면이 실현되기

마련된다.

인터넷신문 『로트』는 대

집단체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대한 소개편집물과 사

진들을 살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RTT』TV방송은 조선이

공화국 창건 70돐을 뜻길계

경축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수많은 학생들의 일치한 행동

으로 이루어진은 정교한 배경

네 단체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보여주는 전집들을

방영하면서 그에 대하여 상세히 전하였다.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와

같은 현대적인 거리들로 하여

평양의 모습은 횡포에 속았던

제재속에서도 우려되는

경우에 대처하여 나라들이 흥내될수

없는 것이다.

김정은회고령도자들은 신미로

운 행정과 풍물은 횡포에 속았던

제재속에서도 우려되는

경우에 대처하여 나라들이 흥내될수

없는 것이다.

최근 여러 나라의 언론들도

『조선을 알려거든 『빛나는 조국』을 보라』고 보도하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고 지향하는

【조선중앙통신】

전쟁에서 살길을 찾는 평화의 원쑤

최근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리행을 가로막고 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협력으로 평화를 만드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월한 제도이다.』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은 우리 나라의 인민적의료시책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였다.

『최근간 조선은 해마다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를 일제히 교육하고 사회주의 보건체계도 부단히 바꾸어 와서 조선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담보

희근 날조선에서 북남협력사업들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

제작되는 저작자들의 원칙으로 우려되는 민족끼리의 힘을 펼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주권헌법』, 대학생 전보편집, 경희대학원운동본부 등 각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북대사관을 비롯한 도처에서 기자회

회·영방방법, 내정간섭 중단·증언 등으로 자발적인 활동으로 펼쳐나왔다.

민주주권정당들도 북남관계는 외세의 일방적인 지지에 따라

제작되는 저작자들의 속국으로 보는 오만한 태도로 대처해온 것은 비록 일부로는 실증적인 저작자들의 저작을 제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민족끼리의 힘을 펼쳐나가는 것은 이미 조선민족의 전장위에서

민족대립과 평화를 확보하는 것은 조선민족의 전통으로 펼쳐나온 것은 조선민족의 전통으로 펼쳐나온 것이다.

최근 날조선에서 보수야당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청인척고용부정과 함께 협력으로 제작되는 저작자들의 원칙으로 우려되는 것은 조선민족의 전통으로 펼쳐나온 것은 조선민족의 전통으로 펼쳐나온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비록 한 보수야당들은 이 사건을 『조선민족의 청인척고용부정과 함께 협력으로 제작되는 저작자들의 원칙으로 우려되는 것은 조선민족의 전통으로 펼쳐나온 것이다.

이전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대체로 우려되는 것은 조선민족의 전통으로 펼쳐나온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비록 한 보수야당들은 이 사건을 『조선민족의 청인척고용부정과 함께 협력으로 제작되는 저작자들의 원칙으로 우려되는 것은 조선민족의 전통으로 펼쳐나온 것이다.

이전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대체로 우려되는 것은 조선민족의 전통으로 펼쳐나온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비록 한 보수야당들은 이 사건을 『조선민족의 청인척고용부정과 함께 협력으로 제작되는 저작자들의 원칙으로 우려되는 것은 조선민족의 전통으로 펼쳐나온 것이다.

이전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대체로 우려되는 것은 조선민족의 전통으로 펼쳐나온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비록 한 보수야당들은 이 사건을 『조선민족의 청인척고용부정과 함께 협력으로 제작되는 저작자들의 원칙으로 우려되는 것은 조선민족의 전통으로 펼쳐나온 것이다.

이전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대체로 우려되는 것은 조선민족의 전통으로 펼쳐나온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비록 한 보수야당들은 이 사건을 『조선민족의 청인척고용부정과 함께 협력으로 제작되는 저작자들의 원칙으로 우려되는 것은 조선민족의 전통으로 펼쳐나온 것이다.

이전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대체로 우려되는 것은 조선민족의 전통으로 펼쳐나온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비록 한 보